

陵旨塔의 構成

申 榮 勳

『오랜 소원이 풀리는 날이 왔다.』

黃壽永교수의 「新羅 文武大王 塔廟의 調査」(『韓國의 佛敎美術』一九七四年十一月十日刊)라는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黃교수는 新羅三山調査團의 東嶽地區의 調査隊의 책임자이었다. 一九六九年이래 四차에 걸친 조사가 있었고 一九七五年 여름에 일대락을 짓는 마무리 조사가 四〇일간 진행되었다. 隊員은 매회 들쭉날쭉이었으나 洪恩俊, 申榮勳은 一차로부터 四차에 걸쳐 조사에 참여하였고 芮庸海先生이 始終 關與하였다.

黃教授는 그의 글에서 陵旨塔(陵只 陵屍 등)의 別名은 洪耳溪先生의 『耳溪集』에서 기록한 『慶州府善德王陵下』에 문무대왕의 陵碑가 있다고 한 것과 洪恩俊先生의 文武大王碑片 수습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大王의 유해를 이곳에서 茶毘한』장소라고 하였다. 現存하는 遺構의 注目과 調査를 통하여 그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밝혀내는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와같은 최종의 결정은 五月 하순 金庠基단장을 중심으로 하여 현지에서 이루어졌다. 첫날 頂上 중앙에서 方形의 擦柱石이 地層을 향하여 累積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같은 양식은 마치 木塔에서 중심 礎石 위에 擦柱를 건립하는 수법과 다름이 없었다. 이 石柱의 하단에 어떤 遺物(舍利)이나 유적을 먼저 예견케 하여 주었다. 과연 擦柱石의 해체가 끝나던 六月一日에 이르러 現塔頂에서 약 五m 되는 지하에 東西로 長軸

을 잡고 그 밑에 공간을 구성한 土石의 遺構가 노출되는 동시에 사용된 石材와 그 地層에서 불에 까맣게 그슬린 혼적과 炭片이 계속 出土됨으로써 한층 주목을 모았다. 그 까닭은 土石의 遺構와 炭化된 木石이나 변색된 土層이야말로 우리가 주장하였던 「以火燒葬」을 위한 조형임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당시의 방식을 따라 이 자리에 축조되었던 火葬墓로서 窯葬의 사실을 가리킨다. 七月에 걸친 핵심부의 掘下작업은 이제 最底遺構에 도달하였는데 이 新羅 最大의 陵只塔은 바로 이 지하의 土石遺構를 에배하고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이룩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차차 세부를 드러낸 이 구조야말로 신라의 나라와 백성에게는 舍利寶에 비할 수 있었던 神聖物이요 尊崇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신라의 火葬방식과 장엄을 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이같은 火葬墓를 중심으로 두 方壇을 짠 初創의 건조물은 상기한 바와 같은 十二支石像과 蓮華文石으로 마련된 현상은 아니었다고 추정되었다. 도리어 이같은 十二支基壇을 지닌 조형은 제 一차의 重創을 맞아 이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까닭은 신라에 있어서 陵墓나 塔基에 十二支像을 배치하는 시대가 八세기에서 九세기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발굴된 石像의 크기와 양식이 慶州에서 景德王陵 또는 掛陵과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七세기 후반에 初建된 건물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곳에서 발견된 兩膝部만의 塑造大佛이 우리에게 어렵듯이 示陵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大佛의 하반신은 積心部를 향하여 발달할 때 石造方壇의 서쪽에 중심선상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破佛의 연대가 그 앞에 퇴적된 瓦塼層의 조사를 통하여 신라 통일초의 작품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初建된 造形物의 조사는 오직 이뿐이었으나 그를 十二支基壇이 內藏하고 있었던 만큼 그보다 연대가 앞섰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현재의 石造物에 앞서 木造建물이 그 위에 建立되었고 그후 火災로 말미암아 불타버린 것을 다시 석조물로 건립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三國史記』文武王條에 대왕께서 친히 지정하신 火葬장소인 『庫門外庭』이 바로 여기라고 밝히려셨던 것이다. 文武大王碑片이 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 四天王寺의 龜趺와의 연관에서도 그점은 한층 뚜렷한 것

으로 보았다.

二

실제로 이런 글을 쓸 자격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 한 調査員에 불과하였던 처지에 사실상 조사가 완료되지도 못한 자료를 미리 공개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를 모르겠다. 더구나 構造物의 實測과 現地에서의 作業을 말야하는 것이 내게 수하된 임무이고 조사나 발굴은 다른 대원들의 소임이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처지도 못된다. 그러나 일단 대장이신 黃교수의 글이 발표된 바 있었으므로 용기를 내어 관여하였던 부분, 구조물의 구성에 대하여만 略記하여 보고자 한다.

발굴에 앞선 現狀實測, 發掘中の 實測 발굴후의 실측과 기록으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게 되었다. 제 1차 조사는 事前調査 같은 예비작업이었다. 平版으로 유구 일대의 측량을 하였다. 四天王寺의 龜趺까지를 포함시키는 광범위한 작업이었다.

遺構는 破材의 巨石들이 무너져 쌓여 있는 方壇이 狼山の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狷拜盤洞, 善德王陵과 四天王寺의 서쪽, 현 衆生寺로 부르는 磨崖佛과 石造立像, 塔과 佛臺座가 있는 신라 절터의 동쪽, 경주에서 울산으로 가는 鐵路와 國道の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狼山기슭은 가파르지 않으며 松林이 등성이 우거진 곳에서 平坦히 퍼져나간 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펼쳐져 있다. 遺構는 그 발 서편에 약간 치우쳐 자리잡았다. 方壇의 石構 서쪽 바로 이윽에 장방형의 土壇이 있다. 두 遺構는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土壇에 대하여는 손이 전혀 미치지 않아 어떤 연관성의 것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제 1차에서 제 3차까지의 조사는 매우 제약된 여건에서 진행되었다. 한정된 경비와 시간, 方壇 주변의 토지가 일일이 개인 땅이고 農作物의 被害나 補償이 문제로 꼭 따라다니기 때문에 작업은 이리 파모은 흙을 다시 지리로 옮기는, 또는 해체한 돌을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딱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 작업의 능률이 저하될뿐 아니라 파보고 싶은 곳을 씩도려 내 보는 일도 주춤거리게 되었다. 제 4차 때에는 다행히 증성사에서 일대의 터를 사 놓았고 자유스럽게 사용하도록 편의를 보아주어서 능률이 높을 수 있었다.

遺構의 方壇은 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무거운 하중과 여러개의 쪽으로 구성된 구심력의 이완으로 사방으로 돌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주변에 쏟아졌다. 겨우 初層塔身의 一部와 基壇의 若干이 남았을 뿐이다. 遺構 調査의 焦點은 어떻게 생겼던 탑이 왜 무너졌느냐에 있었다. 우선 어떻게 생겼던 탑이냐의 확인이 시급하였다. 무너져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들어내면서 밑에 깔려있을 내용이 나타나길 기대하였다.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세월의 변화가 있어 무너진 돌은 흙에 더러 파묻히기도 하였고 몇그루의 소나무가 직경 20cm 정도로 성장하여 있다. 먼저 드잡이들을 설치하고 드잡이들을 동원하여 서쪽과 북쪽의 무너져 있는 돌들을 차례로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해체되어 나오는 돌들을 서쪽 발 넓은 자리에 진열하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어떤 돌들이 쓰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먼저 注目된 돌은 蓮華를 새긴 正方形의 큰 판석과 홀쭉한 長方形 板石들이다. 正方形 판석의 두 변에는 蓮瓣을 넷 혹은 다섯개(드물다)씩 새겼다. 두 변이 露出된 자리에 놓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탑에서 두 변이 노출될 수 있다면 뒷돌밖에는 없다. 처음에는 몇개 밖에 없을 듯 하더니 해체가 진행되면서 그 돌은 차츰 수가 더하여져 마침내 三〇개, 제 4차에서는 四八개라는 수효가 확인 되었다. 長方形 蓮瓣石은 앞머리에만 두개씩 나란히 연꽃을 새겼다. 이 돌의 수는 一〇〇개를 넘고 四차에서는 一四〇여개의 수에 이른다.

문제가 하나 제기되었다. 蓮瓣이 어찌면 양식상 나누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蓮瓣의 判定이 탑의 옛모습을 찾아내는 한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하여 급히 蓮瓣전문가 金和英(梨大博物館)氏를 초빙하였다. 진열된 蓮瓣石을 일일이 實測하면서 서로의 현상을 기록하고 그것의 차이에 따라 양식의 변화를 체크하려 하였다. 그 결과의 보고서가 한국일보社(三山調査主管)에 제출되었던 모양이나 현장까지는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蓮瓣이 仰花와 覆瓣으로 區分된다는說이 전래되어와, 또 현장에서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양화와 북판의 연화를 써가면서 만들어졌을 탑의 모양을 추정하느라 이리저리 圖上作業을 하여 보았으나 현존하는 石材의 數를 만족스럽게 소비시켜줄 형용은 나타나지 않아 고심이 대단하였다.

해체가 계속되고 三차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基壇의 윤곽이 차츰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十二支石像이 제자리 부근에서 出土하였다. 正北 중심선상에서 子像이 나타났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다 멎는 듯한 자세로 앞머리를 숙이고 있다. 뒷쪽이 길어서 고꾸러지는 화를 면하였다. 東쪽의 중심선상에서는 卯像이 仰臥한채 출토하였다. 얇은 板石으로 마치 어떤 構造物에 부착시켰던가, 嵌入되었던 듯한 인상이 짙다. 南쪽의 중심선에 있었던 午像은 이미 일제시대에 경주박물관으로 반출되었었고 서쪽의 중심선에서는 酉像이 앞머리를 약간 숙인 상태로 나타났다. 역시 板石인데 세워진 채 나타난 것이다. 그렇더라도 제자리에서는 물러났다. 丑像·未像·申像·戌像·亥像이 대략 제 위치 부근에서 나왔다. 그런데 十二支像의 形狀에서 주목되는 문제가 있다. 하나는 子像은 平服인데 나머지는 武具를 지닌 武服의 차림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子像처럼 꼬리가 긴 돌을 板石으로 잘라내었다는 점이다. 이는 塔의 基壇構造와 어떤면 무너지는 취약점이 어디 있었던가를 읽어내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뿐만 아니라 이 탑이 세워진 시대와 성격도 파악할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되어 일일히 실측하기로 하였다. 四차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 十二支石像 現存 八軀(一軀는 경주박물관)는 그 높이와 폭에 약간씩의 차이를 갖었다. 이것은 참나누하기 어렵다.

우리가 새롭게 탐을 모은다고 하자. 장대 위에 올려세워 이맛돌로 엮어 막으랄 판석을 그 어간에 세운다고 할때, 판석의 높이를 일정하게 다듬는 것이 상식이다. 신라때의 탑이나 능의 護石 十二支石像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것이 당연한 구조이다. 그런데 이 유구에서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石造構成에서 十二支는 두가지 형태이다. 陵墓의 護石은 뒷뿌리가 길어 土壓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自體에 荷重을 주고 탑의 基壇에서는 板石을 밑눈에 혹은 부치거나 바닥을 斜切하여 앞으로 고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技法을 쓴다. 이 유구에서는 子像처럼 생긴 陵墓護石形 十二支를 탑의 十二支구조처럼 板石으로 잘라내었다. 板石으로 떠내기 위하여 절단용 정을 박았던 흔적이 뚜렷이 지금도 남아있다. 말하자면 陵墓護石形을 板石形으로 突變시킨 것인데 이 점은 두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래 이 十二支는 本遺構의 計劃의인 구성과는 制途로만 들어섰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本遺蹟이 처음 計劃된 設計가 어떤 까닭으로 중도에서 突變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아직 이 두가지 해석을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十二支像이 이 遺蹟과 처음부터 聯關되면서 一括製作을 同時에 하였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彫像의 彫刻技法이 高肉彫, 浮彫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고, 높이와 폭의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觀點은 筆者의 私見이다. 현장에서 의견들은 이 견해와는 달랐다. 그러나 異見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무너지기 以前의 塔의 構成은 方壇四面에 十二支像을 벌려세운 그런 모습이었으리라고 보인다. 발굴이 계속된다. 地臺石이 發見된다. 이마 돌, 처마돌이라고 보이는 장대석이 들어난다. 十二支石像의 머리를 누르던 돌이다. 높이의 차이가 있는 十二支像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마돌과 낮은키의 十二支像 사이에 끼운 얇은 돌도 발견된다. 地臺石에 地覆石이라고 할 장대석이 한줄 더 外護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十二支石像 좌우에 물리는 돌은 어떤 것이었을까. 처음엔 十二支와 마찬가지로의 板石이 아니었을까 보고 그런 돌을 찾아보려 하였다. 塔의 基壇을 聯想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없다. 제4차의 조사에서 비로서 十二支像 좌우에는 武砂石形의 長方形 巨石이 積石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목하기 시작하니 아직까지 그 用途를 알 수 없었던 方形石들의 用處가 밝혀지고 同類를 찾아보니 그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돌은 連瓣石과의 사이에 끼어있음이 비로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東西隅에 무너진 그대로의 돌무더기가 있다. 連瓣石 三枚에 武砂石形 一枚씩이 끼어있는 組合이 三組이다. 여기의 連瓣石은 깃돌로 二邊에 연화가 새겨진 正方形 板石이다. 이로써 본다면 塔身이라고 할 구조도 巨石의 武砂石形임을 알 수 있겠다. 또하나 注目되는 이 組合에서의 觀察은 蓮瓣이 모두 一定한 方向으로 놓였다는 점이다. 從來의 仰瓣, 覆瓣의 概念은 是正되어야 하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反省의 마음이 울어난다. 지나친 細部構造의 探索은 자칫 方向을 잃기 쉽다는 事例를 우리는 서양의 繪畫評論에서 또는

米田美代治의 王宮塔論文에서 본 바 있다. 해석의 理論에 말려들면 원래의 意圖나 作意에서 벗어나기 오히려 쉽다는 점 말이다. 陵旨塔에서 그런 愚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는 오히려 떨어져 바라다 보는 편이 유리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三

基壇의 構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初層塔身과 그 이상의 構造를 받는 荷重의 支撐은 初層塔身을 바치고 있는 장대석 積石과 心礎에 이르는 擦柱의 亂積土心에 의하고 있다는 점과 基壇面石 등의 구조는 荷重支撐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十二支의 基壇이 없어도 初層塔身以上은 버티어서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략의 石塔이 이런 技法이고 그 단적인 예를 王宮里五層石塔의 修理前土壇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럴때 基壇은 木造建物에서와 마찬가지로 基礎外護의 막을물에 불과한 구조로써 만족된다. 本遺構도 이런 도에서 만들어졌으나 결국 그것이 弱點이 되어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 여기에는 그만큼 까닭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西쪽과 南쪽의 基壇板石(특히 十二支石像) 뒤에 巨大한 塑佛片을 埋沒하였다는 裝置로 인한 被害이었다. 南쪽 塑佛坐像은 몸씨 불맞았어서 거의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서쪽 塑佛坐像은 下半身만의 破片이 남아 있다. 細密한 發掘에 의한 조사가 東、北에 걸쳐 실시되면 確然하여 지겠지만 塑佛의 安置는 아직 塔後의 埋沒인지 石塔前의 原位置에서 埋沒된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南쪽의 狀況에서 그것은 原位置에서 볼 단 것을 그대로 쓸어들은,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塑佛片 위로 볼 만한 기와와 半塼、方塼片이 外護한듯이 덮여있는 狀況에서도 일단을 촉감할 수 있다. 十二支의 뒷부리를 잘라야 하였던 까닭도 어쩌면 이 塑佛安置의 아이다어가 中途에서 대두 되었기 때문인듯 想像된다. 想像이란 표현은 그런 신빙성이 입증되는 자료가 없다는 뜻이나 心證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 南方 塑佛片 주변에서는 靑銅에 鍍金한 風鐸과 土塔(圓形)등의 伴出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西方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塑佛周邊에서 여러가지 石塔以前 構造物과 연관되는 瓦片、塼片、金銅佛靑銅裝飾具등이 出土하였다.

石塔 以前에 이 자리에 어떤 構造物이 있었다는 증거는 많다. 그런 증거에서 石造基壇위에 木造建物이 있었을 가능성을 손꼽을 수 있다. 그것이 불맞았나 보다. 불탄 기와가 많이 보인다. 불탄 木造建物이 어느 쪽으로 쏠려 무너졌는지는 아직 주변발굴이 완결되지 않아 모르겠으나 무너진 나머지 돌출 형체를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인위적으로 끌어모아져 土心에 藏置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木造建物일 때에 쓰이던 基壇장대와 心枋石、礎石類가 보인다. 基壇面石이라고도 할 수 있는 石材도 보인다. 이런 돌들이 再使用되고 있다. 어쩌면 木造構造때의 基壇규모가 그대로 石造에서도 답습되었을 가능성도 짚는다.

基壇構造의 確認은 곧 그 上部構造로 연결되었다. 基壇構成의 大要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 4차 조사시 塔址 부분으로 現存石材를 이용하여 假築하여 보았더니 圖上에서 확인된 모습대로 再現됨을 볼 수 있었다. 構造의 原則은 지금의 技法이나 별다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四

初層塔身은 지금 築石되어 남아있는 土壇위의 장대석(동쪽과 남쪽, 서쪽은 土心發掘로 해체한)이었으리라 보인다. 이 장대석은 그 밑동이 土心 밑까지 깊숙히 발전하여 아래로부터 荷重의 支撐이 고려된 心礎의 外郭과 같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亂積土心の 外表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積心처럼 보이는 橫積石의 構造는 여러가지 돌이 混用되고 있어 一見 積心石으로 보여 제 3차 조사때까지만 하여도 積心石으로 취급하고 그 外壁用材를 찾고 있었다. 西方 積石사이에서 발견되는 安山岩 半塼形材가 혹시 芬皇寺石塔과 같은 外表를 구성하였던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구를 자아내었으나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는 지금 安山岩片이 지나치게 적다. 또 그것이 外裝되었을 때 증대되는 두께와 基壇甲石과 基壇面石등의 구성과 매어 이실프게 정리된다는 점을 시인할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오히려 그런 外裝이 없었으리라는 편을 否定할 자료가 부족할 편이다. 아주 거칠지만 현재의 狀況이 石塔의 원모습 初層塔身이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假定하고 다음의 문제로 넘어가 보았다. 初層의 지붕들은 두단의 처마 즉 겹처마에 지붕이 세워지는, 蓮華石으로는 三段이 구성되는 구조로 보았다. 이것이 모두 花辨이다. 차츰

벌려져 가는 모습으로 다른 石塔에 흡사하다. 그 위에 제2층 탑신이 놓인다. 역시 武砂石形의 石材와 장대석들이 섞여 쓰인다. 마치 백제 계열의 고려탑이나 善山桃李寺의 華嚴塔과 유사하다. 그 위로 또 지붕의 三級 蓮華石이 놓인다. 이런 식으로 現存하는 것들(二邊蓮華文方形巨板石)의 用處를 찾아 들어가면서 구성해 보니 五層形의 石塔이 되고 基壇의 甲石에도 仰辨의 蓮華石이 놓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두 개의 연화를 나란히 새긴 장방형 蓮華石의 一八〇여개는 쓸모가 없게 된다. 만일 자꾸만 벌어져 올라가다가 위에서 마무리한 모습이라고 본



<헐어진 石材(現場에서)>



<수습된 石材들>

다면 이 間石은 지나치게 모자라 現存하는 것이 原形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 이는 아무래도 지나치므로 그것의 합리적인 사용을 탐색하면 자연히 백제, 신라계열의 보통 三·五層塔形이야 그렇듯 하게 되며 그렇다고 보면 現存하는 間石이 1/2정도 이상 남아있다고 해도 좋게 된다.

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現存하는 石材를 전부 實測하고 그것에 따라 120로 木材 模型을 만들어 보았다. 몇번 허물고 다시 쌓는 작업을 되풀이하는 중에 五層塔의 形容이 나타났고 相輪을 두었을 여지가 들어났다. 現存하는 石造 相輪材가 여기 相輪에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構成으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假說에 입각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現存塔의 東, 北의 土心 發掘이 남아있다. 이 부분의 土心과 基壇址는 비교적 原形이 크게 교란되지 않았으리라 짐작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知見에서 비로소 확실한 構造探索이 이루어지리라 期待된다.

하나 더 주의하여 들 점은 이 유적과 연관되어 있는 주변의 유구 조사가 併行되었으면 한다. 아직 塔의 성격을 규명할만한 완벽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지금 무너진 상태로 있는 돌들을 완전히 들어내고 거기서부터 주변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發掘하여 보는 일이다. 이 일에는 그 규모가 매우 커서 얼른 손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재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런 연후에 탐의 복원이나 原形의 再現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탐의 조사가 7년간이나 전후 계속되는 동안 여러사람들의 협력이 있었다. 위촉된 調査員 여러분, 金庠基, 黃壽永, 洪思俊, 金英夏, 泰弘燮, 鄭永鎬, 尹容鎭 諸位와 金和英, 姜友邦, 그리고 故人이 되신 朴日薰, 한국일보社의 芮庸海, 禹炳益씨와 金東賢, 朴宗錫, 그리고 당시 佛國寺 發掘調査團의 여러분, 柳芳謂氏와 그 一行도잡이들의 勞苦가 컸음을 밝혀두고 제 4차 조사시 物心兩面으로 협조하여 준 慶州史蹟管理事務所의 鄭在鏞所長以下 여러분과 衆生寺의 厚意에 감사드린다.